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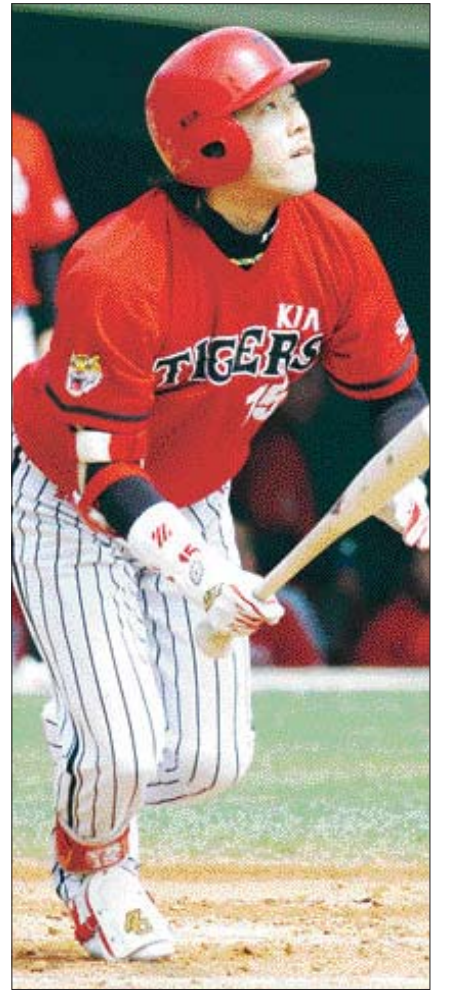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금주의 KIA 프로야구

천적 SK·롯데와 6연전 '산 넘어 산'



최희섭



이용규

이런 것을 두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보다.

서머리그 시작과 동시에 상승세를 탔다가 또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KIA가 이번 주(7월 31일~8월 5일) 천적 SK와 롯데를 만난다. 탈꼴찌가 우선 목표인 KIA로서는 압도하고 험난한 일정이다.

30일 현재 1위 SK와 19게임차, 6위 롯데와 7게임차 꼴찌인 KIA는 올 시즌 이들 두 팀에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인천서 맞붙는 SK와의 시즌 전적은 4승 7패. 팀 방어율은 4.16으로 부진하고 팀 타율은 0.224로 최악이다.

특히 1위를 질주중인 SK는 올 시즌 유일한 400득점대 팀으로 올라서며 팀 장타율 역시 4할대를 기록할 정도로 고강도의 방

망이 감각을 뽐내고 있다.

SK의 더욱 큰 강점은 상대팀 에이스가 나와도 득점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한화 류현진만 해도 개막전 이래 두 차례 SK전

다. 롯데가 6~7위를 오가며 부진한 것을 감안할 때 KIA는 롯데의 몸 보신용이나 마찬가지다.

앞선데 댈전격으로 KIA는 '스나이퍼' 장

를을 다쳐 당분간 정상 출장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마운드도 선발 로테이션을 꾸리기 힘들 정도로 붕괴된 상황.

윤석민-스코비-이대진이 주축이 돼 3선 발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대진의 등판 간격이 긴 탓에 빨질 선발투수 3명을 투입중인 데 지난주 손영민과 정원 등이 모두 난타를 당했고, 스코비와 이대진마저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해내던 윤석민도 29일 삼성전서 부러진 배트에 다리를 맞아 부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희섭의 복귀와 이용규, 이현근, 김중국 등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1경기 평균 6점대의 폭발력을 자랑하고 있는 팀 타선이 유일한 희망이다.

올 시즌 SK에 4승 7패·롯데에 4승 11패

마운드는 붕괴... 최희섭 등 타선에 기대

등판에서 모두 실패를 맛봤다.

롯데(8월 3일~5일·광주)전의 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KIA는 시즌 롯데전서 4승 11패를 기록중인데 팀 방어율이 무려 6.05에 이른다. 한 경기 평균 6점 이상씩을 내주고 있는 것. 팀 타율도 0.246으로 좋지 않

성호와 '해결사' 홍세완의 무릎 부상 재발로 팀 전력에 차질이 생겼다.

장성호는 지난 27일 훈련도중 무릎에 이상이 생겨 휴식중이고, 홍세완은 지난 29일 광주 삼성전에서 3회말 홈으로 쇄도하다 2005년 독일에서 수술 받았던 우측 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시안컵 태극전사들

“잘못한건 우리데

왜 감독님이...”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고 30일 귀국한 축구대표 태극전사들이 핑 베어백 감독의 자진 사퇴에 대해 “자신들이 부진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대표팀은 “목표인 우승을 이루지 못한 건 감독 탓이 아니라 선수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계속 남아서 대표팀을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천수(울산)는 “베어백 감독 만큼 한국 선수에 대해 잘 아는 지도자는 없다. 다른 분이 오면 또 1년 정도 선수 파악에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고 당황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선수들이 감독을 붙잡아 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이 크게 잘못한 건 없다. 티아도보카트 감독 때도 욕을 많이 먹지 않았느냐. 그때보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했다”며 “전술 문제가 나오는데 이는 거스 히딩크 감독 때부터 해왔던 전술이다. 선수가 모자란 것이지 감독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대구)는 “감독님만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은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은 공격수들에게 있다. 베어백 감독님의 전술과 훈련 방식 모두 다 좋다. 긍정적인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퇴가 번복됐으면 하는 뜻을 전했다.

특히 불안했던 포백(4-back) 수비를 이번 대회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고 평가 받고 있는 신에 수비수들은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다.

주축 중앙수비수로 댐 강민수(전남)는 “베어백 감독님으로부터 포백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다. 아직 더 배울 게 남았는데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치지 않는 체력으로 잔물 수비에 활발한 오버래핑을 펼친 왼쪽 풀백 김치우(전남)는 “시간이 갈수록 포백이 완성돼 가는 걸 몸으로 느꼈다. 선수 모두 감독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 지휘봉을 잡는 쪽으로 일이 풀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나마 주장이자 팀 내 최고참인 이문재(수원)는 차분했다. 그는 “축구협회에서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대표팀이 100% 전력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차기 감독의 몫이다. 선수들도 잘 풀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핑 베어백 축구 국가대표팀 겸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표명한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따라 31일 오전 10시30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소집, 후임 사령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영철 축구협회 홍보국장은 30일 “인도네시아에서 머무르고 있는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오늘 낮 베어백 감독과 통화를 해 사퇴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협회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귀국한 베어백 감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사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 8월22일부터 시작될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8월22일~11월21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질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바레인과 같은 조에 속해 있다.

8월22일 첫 경기는 우즈베키스탄과 홈 경기로 상암벌에서 열린다.

베어백 감독은 인천공항 인터뷰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올림픽대표팀의 해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홍명보, 암신 고트비 코치, 코사 골

키퍼 코치 등 훌륭한 스태프가 남아있다. 남은 스태프가 올림픽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백 감독의 의중은 국가대표팀은 자신의 후임자를 고르더라도 당장 최종예선을 치러야 할 올림픽팀의 경우 ‘대행체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독 선발 권한을 갖고 있는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올림픽 예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구계 안팎에서는 국내와 다른 지도자를 하루 빨리 영입해 올림픽팀을 안정 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기간에 새 감독을

물색하고 팀과 호흡을 맞추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8월22일 우즈베키스탄전은 일단 홍명보 코치 대행체제로 치르는 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고트비 코치는 조국 이란의 프로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라 거취가 불투명하다.

문제는 2, 3차전도 9월8일 바레인전(원정), 9월12일 시리아전(홈)으로 연달아 열린다는 점이다.

또 올림픽 최종예선은 각조 1위팀만 베이징행 본선 티켓을 따내는 방식이라 한 두 경기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만한 여유도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팀 홍명보 대행체제 유력

축구협회, 베어백 감독 사의 수용...오늘 기술위 열어 후임 논의

KIA 홍세완 부상 시즌 아وت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홍세완(29)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다.

KIA는 30일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홍세완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쪽 슬개관(종아리 정강이뼈의 활절)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세완은 지난 6월 초 허벅지 부상으로 재활군에 머물다 지난 21일부터 1군에 복귀해 2루수로 활약하다 또 부상으로 이렇게 시즌을 마치게 됐다.

홍세완은 전날 광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홈 경기에서 3회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심재학의 2루타 때 홈으로 쇄도하다 다리가 엉키면서 2005년 9월 독일 레버쿠젠에서 오른쪽 무릎을 또 다쳐 들것에 실려나갔다.

KIA 관계자는 “수술 시기 등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본 뒤 결정된다. 수술 후 재활이 1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내년 전반기까지 그라운드에는 복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세완은 올해 59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1(199타수 52안타), 홈런 7개, 타점 27개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사령관으로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핑 베어백 감독과 홍명보 코치, 고트비 코치가 30일 오전 대표팀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베어백 축구 대표팀감독 입국 회견 “아시안컵 우승 못했지만 만족”

핑 베어백(51) 축구 국가대표팀 겸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음을 재확인했다.

베어백 감독은 30일 오전 동남아 4개국에서 열린 아시안컵축구를 3위로 마감하고 인천공항에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컵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 3위로 마감했다. 선수들은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회를 평가한다면.

▲제주도와 파주에서 2주간 좋은 훈련을 하고 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이 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작은 잘 했는데 바레인전에서 쉽

게 실패한 게 아쉽다. 인도네시아에선 잘했고 그 이후 우리 선수들은 우승컵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3위에 그치고 말았다.

-왜 사퇴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지금에 새로운 도전을 할 시기다. 새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충전을 해야 한다. 아시안컵은 가장 큰 목표였다. 모든 평가전은 불

론 아시안게임조차 아시안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것이었다. 최선을 다했는데 우승하지 못했다.

-올림픽팀을 맡고 있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간다.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랬다. 지난 1년 국가대표, 올

림픽대표, 아시안게임 대표팀까지 세 팀을 맡으면서 체계적으로 부담이 됐고 에너지를 잃었다.

-결과 반복할 수 없는 결정인가.

▲그렇다. 마음을 정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결코 바꾸지 않았다.

-팬들과 언론의 비난도 사퇴 결정에 영향을 줬나.

▲그렇지 않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을 치러봐서 한국 팬들을 잘 안다. 언론도 각자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민주 국가에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예선

1·2·3차 예선 뒤

최종예선 치르기로

아시아 축구 약체들의 2010년 남아공월드컵축구 본선진출 기회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AFC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방식을 바꾸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AFC는 기존 3단계(1차, 2차, 최종예선)로 나뉘었던 예선 방식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해 1, 2, 3차 예선 뒤에 최종예선을 치르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11월 사이에 1, 2차 예선을 치러 15개 팀을 먼저 골라내고, 여기에 시드 배정을 받은 5개 팀을 합쳐 총 20개 팀이 3차 예선을 치르게 된다.

이는 1, 2차 예선을 통해 일찌감치 약체들을 걸러낸 뒤 3차 및 최종예선부터 경쟁력 있는 팀끼리 맞붙게 함으로써 아시아 축구의 질을 높여준다는 의도로 보인다.

3차 예선에 오른 20개 팀은 5개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리그전을 펼치고, 각 조 1, 2위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내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열리는 최종예선에 참가하는 10개 팀은 두 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르고 각 조 1, 2위 팀은 남아공월드컵 ‘직행 티켓’을 얻는다.

최종예선 3위 팀까지 처리하는 플레이오프전 승자는 오세아니아지역 최종예선 승자와 대륙별 플레이오프전을 펼쳐 마지막 본선행 티켓을 다투게 된다.